

격률 위배를 통해 본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

최화니(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목 차〉

- | | |
|---------------------|-----------------|
| 1. 서론 | 3. 격률 위배와 대화 전략 |
| 2.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양상 | 4. 결론 |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격률 위배를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best reply)’의 특징과 대화 전략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스트 댓글이란 댓글¹⁾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찬성 혹은 추천한 댓글을 말한다(문광수 외, 2013: 203).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댓글’은 ‘리플라이(reply)’를 한국어로 옮긴 표현으로 ‘대답하는 글, 상대하는 글’로 풀이된다. 이처럼 ‘답하는 글’의 의미를 갖는 네티즌 언어에는 ‘리플(‘리플라이’의 준말)’, ‘댓글’, ‘덧글’, ‘꼬리’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댓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서은아, 2007: 64-65). 따라서 본고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댓글’을 취하기로 한다.

(1) ㄱ. 스포츠 분야

제목2): '제2의 김연아' 나올 수 없나... 일본도 비웃는 '참혹한' 태릉
훈련장 <스포츠서울 13.04.01.>

베플3): 이런 나라에서 박태환 김연아 나온것 자체가 불가사의다.
7대 불가사의에다가 하나 더 넣어줬음 좋겠네 <추천 820
반대 15>

ㄴ. 시사 분야

제목: 대학생들 '육일승천기' 배경 나치 거수경례 논란 <연합뉴스
13.04.01.>

베플: 진로 상담중요... 상지대 경영학과 VS 집에서 인형 눈알 붙이
기 어떤게 더 비전있나요?? 고민 되네요 <추천 1,786 반대
35>

ㄷ. 연예 분야

제목: 티아라, 4인조 유닛으로 5월초 컴백... '새 출발' <OSEN
13.04.04.>

베플: 너너들도 진짜 어마어마한 쌍논들이다 <추천 2,882 반대 115>

예문(1)은 2013년 4월 첫째 주 '네이트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각 분야별
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제1위의 베스트 댓글이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네티
즌들이 어떤 유형의 댓글 텍스트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베스트
댓글을 살피는 일은 여타의 댓글을 파악하는 것과 구별되는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댓글의 분석으로 네티즌 전반의 언어 사용 경향을 망
라할 수 있다면, 베스트 댓글의 분석은 네티즌이 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언어 사용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⁴⁾ 또한 베스트 댓글을 분석하면

2) 본고에서는 기사의 내용은 생략하고 제목만을 제시한다. 기사 텍스트의 특성상 제목이 전체
기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본문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기사
와 베스트 댓글 간의 상호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다.

3) '베플'은 '베스트 댓글'의 준말이다. '베스트 댓글'은 '베플', '베댓' 등으로 줄여 쓰이는데, 본고
에서는 예문 제시의 편의상 준말 중 하나인 '베플'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베스트 댓글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오타 등의 오류는
수정하지 않았다.

4) 베스트 댓글에 드러나는 언어 사용 전략은 내용과 형식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일반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는 일차적인 근거는 내용의 적절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게시물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인터넷상에 댓글을 남기지 않는 네티즌의 선호도까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댓글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공감 가는 댓글을 추천하는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스트 댓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댓글 자체에 대한 기왕의 연구가 주로 언론 사회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고 언어학적인 접근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⁵⁾ 더욱이 베스트 댓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언어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광수 외(2013)이 거의 유일한 성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베스트 댓글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여러 유형의 댓글 중에서도 온라인 신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조국현(2007: 211)에 따르면 기사 댓글은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따로 거치지 않고 기사 밑에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며, 이러한 편리함이 그동안 소수 집단에 편중된 댓글 문화를 일반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연예·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는 만큼, 기사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댓글의 내용과 방식도 다양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언어 표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 댓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베스트 댓글 자료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NATE)’의 ‘네이트뉴스’ 댓글을 수집한다. ‘네이트뉴스’에서는 네티즌들이 베스트 댓글을 편리하게 공유할 수

많다. 동일한 요지를 드러내는 여러 개의 댓글 중에서 베스트 댓글이 선정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전적으로 내용 측면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베스트 댓글의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다르게 전달된다는 입장에서 베스트 댓글을 살필 것이다.

5) 댓글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성과로는 권순희(2003), 전병철(2007), 조국현(2007, 2009), 허재영 외(2008), 한성일(2009), 안태형(2010, 2011 1, 2011 2, 2013, 2015), 양명희(2011)이 있다. 이들은 댓글의 언어적인 특징을 음운, 형태, 의미, 담화·텍스트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조국현(2007)과 안태형(2010, 2013)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댓글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제외하면 댓글에 대한 언어학적인 접근을 찾기 어렵다. 댓글의 언어학적 분석은 서은아(2007)과 같이 네티즌의 언어 사용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거나, 혹은 김은영(2009), 이주형(2011)처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댓글 자체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있도록 ‘투데이 댓글’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⁶⁾ 이 코너에서는 베스트 댓글과 실시간 댓글을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 시사, 연예, 스포츠’ 분야별로 1위부터 100위까지의 베스트 댓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투데이 댓글’ 코너를 통하여 2013년 4월 첫째 주의 베스트 댓글을 시사, 연예, 스포츠 기사 분야별로 각 100개씩, 총 300개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베스트 댓글에 나타나는 대화 전략을 살피기 위해 Grice(1975)의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⁷⁾ 특히 격률 위배(flouting)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일반 댓글이 네티즌의 호응을 얻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는 데에는 격률의 위배로 창출된 특수한 효과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다만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하위 격률을 일부 축소하고, 공손의 격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격률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분석의 틀을 수정할 것이다.⁹⁾

6) ‘네이트(NATE)’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베스트 댓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네이버뉴스’와 ‘미디어다음’에서도 ‘랭킹뉴스’란을 통해 추천수가 높은 뉴스와 댓글이 많은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트뉴스’처럼 베스트 댓글들만을 별도로 취합하여 제공하지는 않는다.

7) 댓글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이론적 토대는 텍스트언어학(조국형 2007, 2009; 양명희 2011)과 화행 이론(허재영 외 2008; 한성일 2009; 안태형 2011)이었다. 이 중 안태형(2010, 2011-1, 2011-2)에서는 댓글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Grice의 대화 격률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즉, 댓글의 특징 중 하나인 ‘유회적으로 대응하기’는 ‘유회적 반대하기(disagreeing playful)’의 실례로서 Grice의 협력 원리(특히 질의 격률)를 위배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체 댓글 분석의 일부로만 언급되었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나, 대화 격률을 활용한 댓글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예문(1)에서 제시한 각 기사 분야별 제1위의 베스트 댓글에도 대화 격률의 위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률의 위배가 소통을 단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네티즌들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며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9) Grice의 이론은 차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신 그라이스 학파(Neo-Gricean)에 의해 수정된 이론이 등장하였다(김유진, 2005: 3). 이러한 연구의 방향은 크게 Grice의 이론을 축소하려는 시도와 확대하려는 시도로 나뉜다. 먼저 격률을 축소하려는 시도에는 Horn(1985), Sperber&Willson(1986), Levinson(1987)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양의 격률’ 혹은 ‘관련성의 격률’을 중심으로 Grice의 이론을 축소·심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화 격률의 잉여성

우선 대화 격률에서 축소가 필요한 항목은 ‘태도의 격률’이다. 태도의 격률은 다른 격률에 비하여 명확한 분석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모호성을 피하라(Avoid obscurity)’와 ‘간결하라(Be brief)’의 경우, 어떤 것을 ‘모호하고 장황한 발화’로 볼 것이며 어떤 것을 ‘명료하고 간결한 발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격률 위배 수치를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분석 기준을 특히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태도의 격률 중 ‘간결하라’와 ‘모호성을 피하라’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호하고 장황한 발화’의 수행 여부는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다 양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즉,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댓글의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손의 격률을 바탕으로 대화 격률을 보충할 것이다. 공손의 원리를 적용하여 격률을 보완한 연구로는 Yun(1993)이 있다. 여기에서는 Lakoff(1973)¹⁰⁾의 공손 격률을 수정하여 대화 격률의 일부로 삽입한 모델을 보여주는데, 이때 수정된 공손 격률을 보이면 예문(2)와 같다.

(2) 공손의 격률 수정(Yun, 1993: 164)¹¹⁾

ㄱ. don't impose (강요하지 말라)

ㄴ. make a feel good - be friendly (친근하게 하라)

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격률의 축소는 함축 의미를 계산하는 차원에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으나 격률의 위배 양상을 다양하게 살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용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격률을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공손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대화에는 Grice의 협력 원리(CP: Cooperative Principles)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PP: Politeness Principles)도 관여한다고 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Leech(1983)의 공손 격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Grice의 격률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대화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격률 위배 양상과 대화 전략을 다양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참고하여 격률을 첨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10) Thomas(1995)는 공손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관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대화 격률 관점에서의 연구, 체면 관리 관점에서의 연구, 대화 계약 관점에서의 연구, 화용 척도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이 중 Lakoff(1973)은 Leech(1983)와 함께 ‘대화 격률 관점에서의 연구’에 해당한다(이선희, 2002: 90).

11) Yun(1993)에서는 Lakoff(1973)의 공손 격률 중 ‘don't impose’와 ‘give option’을 하나로 묶어 간략히 하였다. 청자에게 부담(강요)을 주지 않는 것은 곧 선택권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윤성규, 2007: 185-186). 이와 더불어 공손의 하위 격률을 새롭게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요약된 Lakoff(1973)의 격률만을 취하여 제시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보충하고자 한다. 위의 수정사항을 종합하여 베스트 댓글의 최종 분석 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베스트 댓글 분석을 위한 대화 격률

ㄱ. 양의 격률

㉠ 진행되는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하라.

㉡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ㄴ. 질의 격률: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ㄷ. 관련성의 격률: 관련성을 지너라.

ㄹ. 태도의 격률: 명료하라, 그리고 특히;

㉠ 중의성을 피하라.

㉡ 조리있게 하라.

ㅁ. 공손의 격률

㉠ 강요하지 말라.

㉡ 친근하게 하라.

예문(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대화 격률을 ‘양, 질, 관련성, 태도, 공손’의 다섯 가지 하위 격률로 수정하였다. 이처럼 수정한 분석 틀에 따라 베스트 댓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양상

이 장에서는 빈도수를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베스트 댓글 전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을 파악한 뒤, 기사 분야별로 나타나는 베스트 댓글의 차이점을 검토할 것이다.

2.1. 격률 위배 빈도

먼저 베스트 댓글 중 전체 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댓글과, 하나 이상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는 댓글의 수를 기사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격률 준수/위배 댓글 수

| 분야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 베스트 댓글 | | | |
| 격률 준수 댓글 | 34 | 36 | 55 |
| 격률 위배 댓글 | 66 | 64 | 45 |
| 합계(개) | 100 | 100 | 100 |

위의 표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격률의 위배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총 66개, 시사 분야에서는 64개의 베스트 댓글이 격률을 위배하여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예 분야에서는 격률을 준수하는 댓글의 수(55개)가 위배 댓글의 수(45개)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빈도 차이는 현저하지 않다. 즉,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와 위배하는 경우가 거의 동등한 수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빈도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¹²⁾

<표 2> 격률 위배 빈도수

| 분야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 하위 격률 | | | |
| 양의 격률 | 21(17.2%) | 14(14.3%) | 20(27.0%) |
| 질의 격률 | 54(44.3%) | 48(49.0%) | 29(39.2%) |
| 관련성의 격률 | 13(10.6%) | 3(3.1%) | 1(1.3%) |
| 태도의 격률 | 5(4.1%) | 1(1.0%) | 5(6.8%) |
| 공손의 격률 | 29(23.8%) | 32(32.6%) | 19(25.7%) |
| 합계(회/%) | 122(100%) | 98(100%) | 74(100%) |

12) 하나의 댓글에서 여러 개의 격률이 동시에 위배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격률의 위배 빈도는 스포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12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98회), 연예(74회) 분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빈도수의 차이는 있으나 하위 격률의 위배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다. 우선 모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질의 격률의 위배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스포츠에서는 전체의 44.3%, 시사에서는 49.0%, 연예에서는 3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손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높은 빈도로 위배되었고, 관련성 및 태도의 격률 위배는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각 대화 격률의 위배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부 격률 위배 빈도수

| 하위 격률 | | 분야 | | |
|---------|------|-----|----|----|
| |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양의 격률 | 정보과다 | 2 | 6 | 3 |
| | 정보과소 | 19 | 8 | 17 |
| 질의 격률 | 과장법 | 29 | 29 | 17 |
| | 반어법 | 3 | 3 | 0 |
| | 은유법 | 20 | 14 | 11 |
| | 완서법 | 0 | 0 | 0 |
| | 기타 | 2 | 2 | 1 |
| 관련성의 격률 | 비관련성 | 13 | 3 | 1 |
| 태도의 격률 | 중의성 | 3 | 1 | 4 |
| | 비조리성 | 2 | 0 | 1 |
| 공손의 격률 | 강요 | 8 | 14 | 6 |
| | 비친근성 | 21 | 18 | 13 |
| 합계(회) | | 122 | 98 | 74 |

〈표 3〉은 대화 격률을 세부 분석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양의 격률에서는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한 경우보다는 적게 제공한 경우가 더 많았다.¹³⁾ 또한 질의 격률에서는 일관되게 과장법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

13) 정보의 과다와 과소는 댓글과 기사 내용 사이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댓글의 화자는 기사의 논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며, 네티즌들 또한 기사에 의존하여 댓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항진명제

났고 그 다음으로는 은유법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더불어 반어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완서법은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분야의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관련성¹⁴⁾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은 다른 격률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빈도로 위배되었으며, 태도의 격률에서는 중의성에 의한 위배가 비조리성에 의한 위배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손의 격률에서는 강요에 의한 위배보다는 비친근성에 따른 위배가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모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공통되는 현상이다.

2.2. 분야별 격률 위배 특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빈도는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각 기사 분야별로 베스트 댓글의 변별적인 특징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스포츠 분야

스포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격률 위배 빈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하였듯이 격률을 위배하는 댓글의 수도 총 66개로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격률 위배 횟수 또한 12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격률의 위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스포츠 기사 댓글 특유의 낮은 추천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기사 분야별로 제1위 댓글과 100위 댓글의 추천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와 같은 잉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보의 과다로 보았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댓글의 함축 의미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즉 별도의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보 과소로 보았다.

14) 여기에서 관련성은 댓글과 기사 내용 간의 상호관련성을 말한다.

〈표 4〉 베스트 댓글 추천수

| 분야 순위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 1위 | 추천 820 | 추천 1,786 | 추천 2,882 |
| 100위 | 추천 177 | 추천 622 | 추천 582 |

위의 표에 따르면 스포츠 기사의 베스트 댓글 추천수가 시사, 연예 기사의 댓글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와 연예 기사의 경우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보편적인 화제를 다루는 반면, 스포츠 기사는 비교적 제한적인 집단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수로 구성된 집단이 댓글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은어(隱語)로서의 말하기 방식이 강화되고, 그것이 격률의 위배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스포츠 기사의 베스트 댓글 중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 댓글이 다수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ㄱ. 제목: '15세(?) 치어리더', 한화 최미교 <디스패치 13.04.07.>

베플: 명호형 우리 떠본다 지금 /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89 반대 5>

ㄴ. 제목: NC 김연정, '키스를 부르는 입술' <디스패치 13.04.01.>

베플: 명호형...모터쇼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추천 244 반대 7>

위의 예문에서 베스트 댓글 화자는 기사의 화제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명호형')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댓글은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으며,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기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¹⁶⁾ 그리

15) 베스트 댓글에 나타나는 줄바꿈은 기호 '/'로 표시하였다.

16) 댓글에 등장하는 '명호형'은 기사를 작성한 강명호 기자의 애칭이다. 평소 모터쇼에서 레이싱걸의 화보를 능숙하게 촬영하여 많은 스포츠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와 댓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화 격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사 안에 기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격률 위배로 보지 않았다. 이를테면 일부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삽입되어 있다.

나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는 기사의 화제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사 작성자를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다른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이처럼 기사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이처럼 특수한 지식의 반영은 스포츠 분야의 댓글 참여자들이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러한 유대 속에서 다양한 격률의 위배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 영역에서 더욱 자유로운 발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은어적인 언어 사용의 일환으로 격률의 위배를 적극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기사에 댓글을 적는 화자들은 집단의 유대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발화하며, 그러한 표현이 네티즌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나. 시사 분야

시사 분야 베스트 댓글의 특징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양의 격률 위배이다. 시사 댓글의 양의 격률 위배 빈도수는 총 14회로, 스포츠(21회)와 연예(20회) 댓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그 세부 양상을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5〉 양의 격률 위배 빈도수

| 하위 격률 | | 분야 | | |
|-------|------|-----|----|----|
| |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양의 격률 | 정보과다 | 2 | 6 | 3 |
| | 정보과소 | 19 | 8 | 17 |
| 합계(회) | | 21 | 14 | 20 |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보 과다에 의한 위배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알립니다.> 최근, '2013 서울모터쇼'가 한창입니다. 더불어 기자에게 "모터쇼 다녀온 뭇을 하라"는 등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야구시즌을 맞이해 기자도 이제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네이트 님들이시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명호 "귀엽고 깜찍한 '롯데 새배트걸'", 디스캐치, 13.04.02.> 기사 내에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 기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댓글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격률 위배로 처리하지 않았다.

나타난 반면에 정보 과소에 의한 위배는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이는 시사 분야의 베스트 댓글 화자가 다른 분야보다 넉넉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보 과다를 보이는 베스트 댓글 중에서 게시물의 분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시사 분야에서만 나타났다.¹⁷⁾ 또한 시사 댓글 중에는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상세히 부가하면서 양의 격률을 준수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아래와 같다.

(5) ㄱ. 제목: “군필자 정년 3년 연장” vs “남녀 모두 연장해야” <노컷뉴스 13.04.03.>

베플: 그냥 여자도 군대에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다 / 갈수록 군병력도 모자라는데 현실이고 21군살 한창인 나이에 2년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들 우대하자는것에 거품물고 반대만 해대는데 / 그 반대하는 여자들이 군필자가 되게끔 해주면 될것같다 / 여자라고 못할것없다 사람이면 다 할수있는 일이고(물론 매우 힘들다) / 또 분단국가인 한국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 여자가 군대에게서 그렇게 위대하다는 가산점과 정년우대 여자도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 / 여성부가 정말 여성을 대변하려면 여자도 군대에 가겠다고 외쳐야 맞는것 아닌가? <추천 1,070 반대 130>

ㄴ. 제목: 소주 뺨고 경찰 폭행까지... 해도 너무한 '동네 조폭' <노컷뉴스 13.04.04.>

베플: 경찰한테 권한을 좀 줘... / 싸움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수수방관만 하기에 항상 비난해왔었는데, 친구중에 한명이 / 경찰이 되어서 물어봤다. 나온대답은 뻔하지. / 경찰이 물리적인 힘으로 막거나 체포하면 변호사들이 100% 과잉진압, 인권침해 등등 / 가지고 경찰을 고소한다. 고소 당하면 승소 하더라도 2년 되는 시간동안 시달리는데 / 어떤 경찰이 마음대로 체포하겠나? / 범죄자한테 유리한 나라. / 경찰에게 체포 시 권한을 좀 주자. 3번 경고했는데도 불응하거나 경찰 앞에서 범죄를 / 계속 저지를 경우 가스총을 쏘던 전기총을 쏘던 썩버리고 끌고 갈 수 있도록. / 사비 돈벌레 변호사들 권한좀

17) 이와 관련된 예문과 설명은 3.3.에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베스트 댓글의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보인 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사'라는 기사 분야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적 쟁점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은 곧 타인의 설득으로 이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보의 제공으로 설득당한 청자에 의해 베스트 댓글이 선정되고, 이에 따라 정보 과소를 보이는 댓글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사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손의 격률 위배이다. 그 세부 양상을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6> 공손의 격률 위배 빈도수

| 하위 격률 | | 분야 | | |
|--------|------|-----|----|----|
| | | 스포츠 | 시사 | 연예 |
| 공손의 격률 | 강요 | 8 | 14 | 6 |
| | 비친근성 | 21 | 18 | 13 |
| 합계(회) | | 29 | 32 | 19 |

위의 표를 보면 시사 분야 댓글에서 강요에 의한 위배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댓글은 비친근성에 의한 격률 위배가 압도적인 반면, 시사 댓글에서는 강요와 비친근성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다. 이 또한 시사 분야의 특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적 쟁점에 따른 화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곧 관련 사건에 가담하는 인물 혹은 집단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연예 분야

연예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전체적으로 격률의 위배보다는 격률 준수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포츠와 시사 분야에서는 베스트 댓글 중 과반수가

격률을 위배하였던 반면에 연예 분야에서는 전체 격률을 준수하는 댓글의 수가 좀 더 많았으며, 격률의 위배 횟수도 전체 분야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분야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4>의 댓글 추천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분야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는 대단히 높다. 대중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가십 기사가 대부분 연예 기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관심도가 격률의 준수로 이어졌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격률의 위배는 특별한 의사소통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통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연예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 그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예 분야에서는 양의 격률의 위배가 유독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스포츠, 시사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양의 격률 위배가 전체의 20% 미만으로 공손의 격률 위배보다 낮았다. 그러나 연예 댓글에서는 양의 격률 위배가 총 27.0%를 차지하여 공손의 격률 위배(25.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양의 격률이 위배되는 요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행어의 사용이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ㄱ. 제목: '윤후를 망쳤어?... 짜과구리 광고에 네티즌 "촌티 철철" 지적
<스포츠서울 13.04.03.>

베플: 광고 수준이 왜 때문에 그래요? <추천 923 반대 34>

ㄴ. 제목: 김기리·신보라 트위터 속 다정 사진... '그랬었구나!' <스타뉴스 13.04.02.>

베플: 김기리:저...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여자거든요 / 송준근:라따~라따~ 아라따~! <추천 496 반대 12>

예문(6)의 베스트 댓글은 '왜 때문에 그래요', '라따~라따~아라따~!'와 같은 유행어를 알지 못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댓글은 유행어를 모르는 네티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은 '연예' 분야에서 비롯된 특징으로 판단된다. 유행어는 주로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연예계 인물에 의해 형성되고, 따라서 그 인물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

문이다. 스포츠와 시사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유행어 사용에 따른 양의 격률 위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은 말 그대로 ‘유행어’로서 이미 수많은 대중에 의해 재미있고 매력적인 표현으로 검증된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댓글에 비하여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유행어의 특징이 네티즌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3. 격률 위배와 대화 전략

이 장에서는 베스트 댓글의 구체적인 격률 위배 양상을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 화자의 대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높은 빈도로 위배된 질의 격률부터 공손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 및 태도의 격률 순서로 논의할 것이다.

3.1. 질의 격률 위배

질의 격률 위배는 일반적으로 수사적 표현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질의 격률이 자주 위배되었다는 것은 베스트 댓글의 화자들이 특수한 의사소통 효과를 위해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 격률 위배는 과장법(hyperbole)과 완서법(litote), 은유법(metaphor), 반어법(ironie)¹⁸ 및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가. 과장법

질의 격률 위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은 과장법이었다. 과장법은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8) 과장법, 반어법, 은유법, 완서법은 질의 격률을 위배하여 다양한 함축 의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예이다(한수진, 2001: 32).

나. 은유법

과장법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은유법이었다.²⁰⁾ 은유법은 명사 은유, 술어 은유, 문장 은유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²¹⁾

- (8) ㄱ. 제목: 박시후 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진실’… 후배 K씨는 ‘거짓’
 <스포츠서울 13.04.01.>
 베플: 이 드라마 진짜 흥미진진하네 <추천 535 반대 36>
 ㄴ. 제목: “담배 안준다” 노숙인 때려 죽인 10대 징역 8년 선고 <노컷뉴스 13.04.01.>
 베플: 법이 시대변화를 못쫓아온다. 담배안준다고 사람을 죽인 10대가 살인하면 7~8년이라고!?(후략) <추천 891 반대 9>
 ㄷ. 제목: 손연재 건강악화, 시즌 첫 월드컵 대회 출전 ‘빨간 불’ <스포츠서울 13.04.02.>
 베플: 밀밥제대로 까네 <추천 557 반대 75>

예문(8-ㄱ)은 실제의 사건을 ‘드라마’로 지칭한 명사 은유의 예이다. 실제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은유하여 사건의 ‘흥미진진함’을 강조한 수법이다. 다

- 20) 폭넓은 은유 표현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대>)에 단어 의미, 관용구, 속담으로 등재된 것은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베스트 댓글은 질의 격률 위배로 처리하지 않았다.
- ㄱ. 윤후는 진짜 천사였어
 → <표대> 천사(天使): '2,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ㄴ. 섬 근무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나 배끌고 저렇게 웅진반도 넘어가면 해안포맞고 고기밥된다 (후략)
 → <표대> [관용구] 고기밥(이) 되다: 물에 빠져 죽다.
- ㄷ. (전략) 전처와 딸 아이는 전혀 생각치 않은 지금 현실의 이미지 쇄신 돌파구로 힐링 캠프에 나왔나 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소이다!!!!!!
 → <표대> [속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가린다고 가렸으나 가려지지 아니한다는 말.
- 21) 세 부류의 은유와 대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익환·권경원 역, 1992: 172-174).
- ㄱ. 명사 은유(nominal metaphors): lago is an eel. (lago는 뱀장어이다.)
 ㄴ. 술어 은유(predicative metaphor): Mrs Grandhi steamed ahead. (Grandhi 여사는 전속력을 냈다.)
 ㄷ. 문장 은유(sentential metaphor): A: What kind of mood did you find the boss in? (사장에게서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까?), B: The lion roared.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음 예문(8ㄴ)은 ‘뺨’에 대하여 ‘쫓아오다’라는 동사를 대응시킨 술어 은유의 예이다. 이는 ‘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은유적 표현이다. 또한 (8ㄷ)에서는 ‘밀밥을 깔다’라는 문장 단위의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변명거리나 복선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관용어처럼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다.²²⁾

관용적인 은유 표현의 예로 눈에 띄는 것은 술어 ‘털다’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9) ㄱ. 제목: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 공개… 논란 일파만파 <SBS 13.04.04.>

베플: 지금 일베에서 가입자 신상털고있음ㅋㅋㅋ / 똥줄타겠다 가입한 중복새리들ㅋㅋㅋ <추천 812 반대 83>

ㄴ. 제목: 北 사이트에 ‘저팔계’ 김정은 사진 등장… 현상금까지 걸려 <뉴스 13.04.04.>

베플: 와우..... 어나니머스 ㅎㅎㅎ / 세계 최고의 해커 단체 납셨네 / 뽀뽀지 털면 다 털어버리는 애들.. ㅎㅎㅎ <추천 759 반대 24>

위의 예문에서는 새로운 은유적 구조화가 나타난다. ‘털다’는 본래 ‘남이 가진 재물을 몽땅 빼앗거나 그것이 보관된 장소를 모조리 뒤지어 훑치다.’의 의미로, ‘금품을 털다, 은행을 털다’ 등으로 쓰인다.²³⁾ 그러나 (9ㄱ)에서는 ‘신상(정보)’을 털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9ㄴ)에서는 ‘사이트’와 같은 일종의 정보 보관소를 털 수 있는 장소로 보았다.²⁴⁾ 여기에는 ‘정보는 재물’

22) 인터넷상에서 ‘밀밥을 깔다’가 쓰인 예를 몇 가지 추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ㄱ. 지난 몇 달 동안 테베스가 ‘선수 은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연봉 재협상이나 이적을 노린 ‘밀밥 깔기’가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서형욱, “마리오네트” 테베스,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비스포츠, 10.12.17.>
 ㄴ. PHR 논의만 이뤄져도 원격진료를 위한 밀밥 깔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성미, “미래의료 성큼, 상상을 뛰어넘다”, 데일리메디, 15.04.08.>

23) <표대> 털다: ‘남이 가진 재물을 몽땅 빼앗거나 그것이 보관된 장소를 모조리 뒤지어 훑치다.’

¶ 금품을 털다. / 은행을 털 강도를 수배하다. / 강도가 집에 있는 돈을 털어 갔다.

24)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9ㄴ)의 ‘털다’는 (9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9ㄴ)에서 사이트를 ‘털’는 행위는 ‘정보를 훑치는’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이트 해킹을 통해 대상을 ‘공격하는’

은유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유는 사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유이다.

이처럼 은유 표현에 의한 격률 위배는 어휘부터 문장 단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며, 독창적인 표현과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은유법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 또한 베스트 댓글 화자의 지배적인 대화 전략 중 하나이다.

다. 반어법

반어법은 스포츠와 시사 분야의 댓글에서만 나타나며 빈도수도 크게 높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본래 의도와 반대되는 진술을 통해 특정 대상을 강하게 비난하는 역할을 한다.

(10) ㄱ. 제목: 손연재, 리스본WC 개인종합 9위... 3종목 결선행 <엑스포즈 뉴스 13.04.07.>

베플: 이 선수는 평소에는 기사 수도 많고, 대문짝만하게 나더니, 대회만 시작하면 기사가 줄어. / 지난 번 종합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씩이나 올랐네. 지난 번이나 이번이나 둘 다 B급 대회. / 올림픽 5위인데 너무하네. 세계 5위씩이나 하는 선수가 자기 보다 윗 성적도 없는 대회에서. <추천 427 반대 96>

ㄴ. 제목: 당당히 담배피는 10대들... “애들 무서워 단속해달라” 민원 봇물 <헤럴드생생뉴스 13.04.03.>

베플: 법이 너무 좋아서 말이지 / 시비 붙어서 때리면 폭행했다고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털다’의 부정적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 의미 변이의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와 유사한 ‘털다’의 쓰임을 찾으면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ㄱ. 조국 교수, 일베를 털다 / 일베충들의 집단 서식지인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모든 광고가 끊겼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베에 광고를 싣는 정신 나간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지 정확히 10시간 만에 일베의 돈줄이었던 광고가 모두 사라졌다. <네이버블로그, 13.05.24. (<http://blog.naver.com/mudvist/70168208988>)>

ㄴ. 나 사실 화작문에서 존나털릴 / 예상외로 문학비문학선방했는데 사스가 화작문에서 싸대키쳐맞음 <YGOSU, 13.11.09. (<http://www.ygosu.com/community/?bid=study&idx=153612>)>

하고 / 맞으면 미성년자라 풀어주고 / 멋지네 개같은 나라
<추천 1,197 반대 9>

예문(10ㄱ)에서는 보조사 ‘이나’를 통해 선수의 순위가 적게 오른 상황을 반대로 많이 오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0ㄴ)에서는 ‘법’과 ‘나라’를 ‘좋다’, ‘멋지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신랄한 비난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베스트 댓글의 화자는 비난의 의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어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기타

그 밖에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는 주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웃음을 유도하는 예가 많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ㄱ. 제목: 류현진, ‘꼬마야~ 형이 공 좋게’ <마이테일리 13.04.02.>
 베플: 류현진, ‘대신 햄버거 줄래?’ <추천 216 반대 1>
 ㄴ. 제목: 반기문 UN 사무총장, 레알 마드리드-레반테 ‘시축’ <OSEN 13.04.07.>
 베플: ㅎㄷㄷ 역시 축구명가 VAN씨가문 <추천 172 반대 9>

(11ㄱ)에서는 ‘류현진’이 말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실제로 말한 것처럼 표현하여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는 인물의 특징(햄버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작성한 댓글로, 그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또한 (11ㄴ)은 ‘반’과 ‘VAN’의 발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반기문’이 ‘VAN(네덜란드 축구 선수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중 하나)씨 가문’이라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기사와 관련된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댓글의 화자는 질의 격률 위배를 통해 유희적인 발화를 수행하며, 이로써 촉발된 유머와 해학이 네티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3.2. 공손의 격률 위배

공손의 격률은 질의 격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위배된 격률이다. 공손의 격률을 분석하려면 우선 공손을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댓글의 청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베스트 댓글의 청자를 크게 ‘화제 관련 인물’, ‘기자’, ‘네티즌’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청자별 공손의 격률 위배 빈도수

| 청자 분야 | 화제 관련 인물 | | 기자 | | 네티즌 | |
|----------|----------|------|----|------|-----|------|
| | 강요 | 비친근성 | 강요 | 비친근성 | 강요 | 비친근성 |
| 스포츠 | 6 | 12 | 2 | 6 | 0 | 3 |
| 시사 | 11 | 14 | 3 | 4 | 0 | 0 |
| 연예 | 5 | 10 | 0 | 0 | 1 | 3 |
| 합계(회) | 22 | 36 | 5 | 10 | 1 | 6 |
| | 58 | | 15 | | 7 | |

위의 표에 따르면 공손의 격률은 화제 관련 인물을 청자로 삼아 발화할 경우에 가장 많이 위배되었으며, 기자와 네티즌에 대한 격률의 위배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요보다는 비친근성을 드러내는 쪽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화제 관련 인물 및 기자

먼저 화제 관련 인물에 대하여 공손의 격률을 위배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2) ㄱ. 제목: 檢·警,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이적행위 수사 착수 <연합뉴스 13.04.05.>

배플: 대대적으로 털어라. / 특히 통진당, 오마이, 전교조 <추천 816 반대 95>

ㄴ. 제목: '힐링' 설경구 “송윤아, 나 때문에 상처 안고 살아” 눈물
<OSEN 13.04.02.>

베플: 당신전처는 피눈물을 흘렸어 나쁜양반아 <추천 1,055 반대
350>

예문(12ㄱ)의 화자는 기사의 화제와 관련된 인물, 즉 검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명령 표현을 사용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강요함으로써 공손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12ㄴ)에서는 기사 내용의 핵심 인물을 '나쁜 양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친근성을 드러내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화제 관련 인물에 대해 공손의 격률이 높은 빈도로 위배될 수 있는 것은 화자와 청자 간의 인식적 거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제 관련 인물들도 네티즌의 입장에서 기사의 댓글을 접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댓글을 직접 소비하는 실질적인 청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상의 화자는 이러한 거리감에 기반하여 대상에 대한 강요와 비친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사에 대하여 불손함을 표현하는 베스트 댓글에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다.

(13) ㄱ. 제목: 北사이트 가입자 '신상털기' 속출... 국보법 논란도 <노컷뉴스
13.04.05.>

베플: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이부분 말인데 저 검찰관계자 누군지 밝혀줄 수 있는거지? / 국보법 7조 3항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말했던 말이지? / 노컷뉴스가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할것 같은데? 관계자 누군지 밝혀라 <추천 1,050 반대 153>

ㄴ. 제목: 美 항공모함 2척, 한반도 작전지역으로 극비리 이동중 <뉴스1
13.04.05.>

베플: 극비리데 떠벌리고 댕기냐 그지 같은 기사야 <추천 734 반대
96>

25) 청자에 대한 '강요'를 보이는 사례는 직접적인 명령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청유형 표현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공손성 유지를 위한 완곡 표현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또한 '비친근성'의 사례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풍자적인 표현으로 청자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경우로 보았다.

(13ㄱ)에서는 ‘노컷뉴스(기자)’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13ㄴ)에서는 기자에 대한 비친근성을 드러내어 공손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사를 청자로 설정한 댓글은 많지 않았다. 기자는 주로 사건의 개요를 그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단순한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댓글에서 기사를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손 혹은 불손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 네티즌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손의 격률을 위배한 경우는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격률 위배 표현은 댓글을 읽는 네티즌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ㄱ. 제목: MC몽 근황 “모든 것 내려놔다” 최초 심경오백 <스포츠조선 13.04.05.>

베플: 술까말 mc몽도 물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잘못은 있다...
근데 정말로 쓰레기 취급 / 받아야할 놈은 박유천 아닌가???
박유천 빠순이들아 그렇게 썰드쳐주면 박유천이 / 선물이라도 해주냐??ㅋㅋ 정신차려..... <추천 1,347 반대 746>

ㄴ. 제목: ‘ML 데뷔’ 류현진, SF전 QS ‘첫 승 사냥 실패’ <OSEN 13.04.03.>

베플: QS 한거면 잘한거지 뭘그렇게까대냐 너넨 데뷔전에서 뭐 퍼펙트경기 보여줄거라고 기대했냐?? 아니면 토토쟁이들이신가?? <추천 192 반대 14>

(14ㄱ)에서는 네티즌 중 일부 팬들을 ‘빠순이(열광적인 여성 팬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비하하면서 ‘정신차려’라는 명령 발화를 수행하여 강요와 비친근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또 (14ㄴ)에서는 류현진을 비난하는 네티즌에게 ‘토토쟁이(스포츠 도박 참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친근성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베스트 댓글의 화자가 청자로 설정한 인물

은 네티즌 중에서도 일부이며, 이러한 댓글에 공감하고 추천을 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그 일부 집단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위의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데에는 댓글의 실질적이고 일차적인 청자, 즉 네티즌에 대한 공손 격률의 ‘준수’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댓글의 화자가 표면적 청자(화제 관련 인물)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 청자(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공공의 적’을 설정하여 댓글 소비자와의 유대를 강화한 것이다.

표면적 청자에게 불손함을 표현하는 것은 제3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래의 예문(15ㄱ)과 (15ㄴ)을 비교해 보자.

(15) ㄱ. 제목: 檢·警,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이적행위 수사 착수 <연합뉴스 13.04.05>

베플: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사이트 가입할정도면 완전 북한에 선동되가지고 한국정부 비판에 분열조장하는 사람들일텐데. 이런사람들만 없애도 한국 지금보다 더 발전된 나라 될수 있을것같음. 아니면 저런사람들 단체로 묶어서 북으로 보내버려주세요 <추천 927 반대 63>

ㄴ. 제목: 어노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회원 계정 공개 <머니투데이 13.04.04.>

베플: 현재까지 밝혀진 간첩들 소속 - 오늘의 유머, 오마이뉴스 기자, 통합진보당, 금속노조, 전교조, 나꼼수 등등 / 이태종고 또 인권탄압이니 뭐니 하겠지... 간첩새끼들아 북으로 꺼져라 / 니들은 전부다 털렸어 한국에 발붙이고 살 생각 말이라 ㅋㅋ <추천 766 반대 173>

(15ㄱ)에서는 ‘이런, 저런’과 같은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제3자(‘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에 대한 비난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비난의 대상을 3인칭으로 가리키는 것은 화자와 지시 대상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부여한다. 화자는 ‘이, 저’로 지시된 대상에게 직접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15ㄴ)과 같이 비난의 대상을 직접적인 청자로 상정할 경우, 비난의 의도는 물론 요구와 같은 화행도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즉, 베스트 댓글의 화자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물을 댓글의 표면적 청자로 설정하고 공손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비난을 극대화하며, 그러한 불손함이 여타의 네티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또한 격률 위배에서 드러나는 주요 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3. 양의 격률 위배

공손의 격률과 더불어 높은 빈도로 위배된 격률은 양의 격률이다. 그 위배 양상은 정보 과다와 정보 과소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가. 정보 과다

먼저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보인다.

- (16) ㄱ. 제목: 르몽드 “한국인들, 북한 위협에 면역된 듯” <연합뉴스 13.04.02.>

베플: 일본이 지진에 면역되서 차분하게 대처하는거 비슷한거지. 솔직히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미사일 날아오는 동안 대피해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어. 죽으면 그냥 죽는거여.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어. 차라리 항상 불안에 떨바에 할일하면서 보내는게 낫지. <추천 617 반대 28>

- ㄴ. 제목: 어나니머스, 우리민족끼리 회원 정보 2차 공개 <SBS 13.04.06.>

베플: 우민끼 사건의 요점(핼) / 대한민국의 자칭 ‘민주투사’진보’ 라는 빨갱이들 (중북세력)도 / 이번 우민끼 간첩단 사건으로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뽕통났다. / 그동안 중북 좌파들은 이런 발언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국민들을 속여왔다. /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 / 그러나 국제해커조직 어나미너스가 해킹한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 자칭 ‘민주투사’ ‘진보’ 라는

가면을 쓰고 암약해왔던 종북세력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 드러났던것이다. / 통진당,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이미 종북으로 알려진 세력들 이외에도 / M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 기자, PD, 각계각층에 빨갱이들이 포진해있었다. / 과거 서독에 동독을 추종하는 반역자들이 5만명이었고 / 남베트남에 북베트남을 추종하는 반역자들이 수만명이었으니 / 황장엽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에 복환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5만명이라해서 / 전혀 이상할것도 없다. / 그러나 이번에 진짜로 그 종북세력의 실체가 드러난것을 보니 / 정말 등에 소름이 짝 끼친다. /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등에 비수를 꽂을 반역자들의 명단은 길히 보존해야한다. / 그래서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서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 그런데도 ‘마녀사냥’인민재판’이라는 소가 웃을 말도 안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 위기를 벗어나려는 종북세력들이 보기에 안스럽다. / ‘호기심’ ‘장난’으로 가입했다?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도용당했다? / 이것도 말도 안되는 공색한 변명이다. / 대한민국에 차단된 북한 사이트를 접속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단순히 호기심으로 가입할수 없다는 야그다. / 남이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 남이 도용해서 얻을 실익이 없기때문이다. /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게 그래도 봐줄만하다. / 그래 내가 스스로 가입했다. 그래서 어쩔래, 배째라! / 빨갱이면 빨갱이라고 당당히 밝혀라! / 그럴 용기도 없냐? <추천 715 반대 121>

예문(16ㄱ)에 언급된 ‘죽으면 (그냥) 죽는다’는 항진명제(tautology)로, 표면상 필요 없는 정보를 제시하여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²⁶⁾ 한편 (16ㄴ)은 다른 댓글에 비해 과도하게 길고 장황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인터넷 공간에 쓰인 글을 그대로 가져와 댓글에 붙여 넣음으로써²⁷⁾ 양의 격

26) 항진명제의 발화는 원칙적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다(이익환·권경원 역, 1992: 123). 항진명제 표현의 다양한 유형은 이정애(2013)의 논의를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27) 밑줄 친 부분의 ‘펼’이라는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펼’은 ‘펴움(펴오다)’의 준말로 인터넷상의

를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분량을 제공한 댓글은 단 한 건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항진명제적 표현이거나 혹은 기사 내용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덧붙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 정보 과소

다음으로 지나치게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7) ㄱ. 제목: 손연재 건강악화 불구 리듬체조 월드컵 출전 결정 <뉴스엔 13.04.02.>

베플: 깔고 시작하겠다는거~ <추천 456 반대 80>

ㄴ. 제목: 티아라, 4인조 유닛으로 5월초 컴백... '새 출발' <OSEN 13.04.04.>

베플: 너너들도 진짜 어마어마한 쌍논들이다 <추천 2,882 반대 115>

(17ㄱ)에는 '깔다'의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문장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화제 관련 인물과 여론에 대한 배경지식은 물론 '밑밥을 깔다'라는 은유 표현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17ㄴ)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화자가 이처럼 발화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맥락 정보(해당 인물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전말)를 활용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보를 적게 제공한 경우가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한 경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 과다의 사례 중에도 텍스트의 분량 자체를 장황하게 늘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댓글의 특성상 간결한 형태가 선호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베스트 댓글의 화자는 대체로 최소한의 발화를 통해 최대한의 의사소통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미이다.

예문(18ㄱ)에서는 기사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진로상담’을 언급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는 기사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을 풍자하여 강하게 비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18ㄴ)은 특수 기호를 활용하여 원숭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원숭이는 기사의 내용과 어떠한 관계도 없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사 속의 ‘관중’을 조소하고 비하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관련성의 격률 위배는 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대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나. 태도의 격률

태도의 격률은 ‘중의성’과 ‘비조리성’을 보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ㄱ. 제목: 넥센 덕돌이 ‘탈 벗고 미모의 여친과 함께’ <엑스포츠뉴스 13.04.06.>

배플: 사랑은 돈, 명예보단 / 역시 가슴으로하는거죠 / 따뜻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272 반대 33>

ㄴ. 제목: 조인성 쌍둥이집 방이동 랜드마크된 사연 ‘소지섭 놀러오기도’ <뉴스엔 13.04.04.>

배플: 난 여자들이 조인성을 왜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잘 되네..... <추천 610 반대 50>

위의 예문(19ㄱ)은 중의성, (19ㄴ)은 비조리성을 통해 태도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19ㄱ)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나 생각’의 뜻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나, 기사의 내용과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젖가슴’을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는 유머러스한 효과를 낳는다. 또한 (19ㄴ)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문장의 구성을 보이지 않고 반전을 줌으로써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²⁸⁾ 이러한 비조리성 또한 웃음을 유

28) 예문(19ㄴ)이 전형적인 문장과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은 다른 네티즌들이 작성한 ‘댓글의 댓글(댓글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댓글 아래에 작성한 2차적 댓글)’에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ㄴ)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의 댓글’이 부가되어 있다.

발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관련성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은 높은 빈도로 위배되지는 않지만, 풍자와 해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대화 전략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베스트 댓글에 나타나는 격률의 위배 양상과 이에 따른 대화 전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양상

베스트 댓글의 격률 위배 빈도수는 스포츠, 시사, 연예 분야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빈도수의 차이는 있으나 하위 격률의 위배 경향은 대부분 유사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질의 격률의 위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공손의 격률과 양의 격률, 관련성과 태도의 격률 순서로 높은 위배 빈도를 보였다.

스포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네티즌들이 은어적 언어 사용의 일환으로 전체 격률을 적극 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사 분야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따른 화자의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양의 격률을 준수하고 공손의 격률을 위배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예 분야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격률의 준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나. 격률 위배와 대화 전략

질의 격률은 가장 높은 빈도로 위배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과장법과 은유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의견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관용적 은유 표현과 독창적 은유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베스트

ㄱ. 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전
ㄴ. ㅋㅋㅋㅋ 끝에 글자 잘보세요 “안”이 아니라 “잘”이에요
ㄷ. 한국말은 끝까지 듣고 봐야함 ㅋ

댓글의 가장 지배적인 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위배된 공손 격률은 공손의 표현 대상을 ‘화제 관련 인물’, ‘기자’, ‘네티즌’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공손의 격률은 ‘화제 관련 인물’을 표면적 청자로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이 위배되었는데, 이는 표면적 청자에 대한 불손함을 통해 실질적인 청자(네티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양의 격률 위배는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한 경우보다는 과소하게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소통을 꾀하는 전략이 선호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 위배는 비록 빈도수는 낮았지만 언어유희를 통해 풍자와 해학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격률 위배에 따른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

- (i) 유연하게 말하기: 관련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발화한다.
- (ii) 과장하여 말하기: 화자의 의도를 과장하여 강렬하게 전달한다.
- (iii) 은유적으로 말하기: 관용적 은유 표현과 독창적 은유 표현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 (iv) 불손하게 말하기: 표면적 청자에 대한 불손으로 실질적인 청자와 교감한다.
- (v) 은어로서 말하기: 청자와의 공유 지식을 최대화하고 언어 표현을 최소화한다.
- (vi) 유희적으로 말하기: 언어유희를 통해 풍자와 해학을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베스트 댓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Grice(1975)의 대화 격률과 Lakoff(1973)의 공손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댓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을 온전히 밝히려 면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베스트 댓글의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댓글의 내용적인 측면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내용 차원에서 대화 전략을 파악하려면 한층 복잡한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 댓글과 기사 본문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댓글이 제3의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관계, 그 밖의 다양한 인지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폭넓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의 분석 자료는 ‘네이트뉴스’의 베스트 댓글 300개로 국한되었으나 추후에는 좀 더 다양한 유형과 방대한 규모의 말뭉치를 분석하여야 논의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대화 격률 이외의 다른 연구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또한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참고문헌〉

- 권순희(2003),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스트에 나타난 수용자의 반응 분석」,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pp. 227-253.
- 김경애 외(2012), 『영어회용론』, 종합출판ENG.
- 김유진(2005), 「대화원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9),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문화 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양진·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박이정(Lakoff, G. & Johnson, M. (2003),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 문광수 외(2013),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한국콘텐츠학회, pp. 201-211.
- 서은아(2007), 『글쓰기로써 말하기 또는 네티즌의 폼글, 댓글, 베플, 악플, 아이디 그리고 이모티콘의 언어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태형(2010), 「인터넷 토론 게시판 댓글의 유형 연구」,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pp. 311-333.
- 안태형(2011ㄱ), 「인터넷 토론 댓글의 표현 전략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태형(2011ㄴ), 「인터넷 토론 댓글의 방어 전략과 전략 선택 요인」,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pp. 71-94.
- 안태형(2013),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 『우리말연구』 32, 우리말글학회, pp. 109-131.
- 안태형(2015),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악성 댓글의 실태」, 『우리말연구』 40, 우리말글학회, pp. 153-174.
- 양명희(2011), 「토론 댓글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다음 아고라의 토론 댓글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 161-186.
- 윤성규(2007), 「대화격률과 함축에 관한 연구」, 『영미연구』 17, 한국외국어

- 대학교 영미연구소, pp. 173-194.
- 이선희(2002), 「정중성 이론의 제 양상과 통합적 모형」, 『언어와언어교육』 17, 동아대학교 언어교육원, pp. 85-117.
-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정애(2013), 「국어 항진명제의 통사유형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87, 한국언어학회, pp. 65-93.
- 이주형(2011), 「댓글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00), 「대화 함축의 화용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병철(2007), 「댓글에 나타난 욕설의 형태 연구」, 『언어학연구』 11, 한국중원언어학회, pp. 189-205.
- 조국현(2007), 「인터넷 ‘댓글’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 203-230.
- 조국현(2009), 「독일 온라인 신문의 독자 공간 고찰 및 댓글 분석」, 『獨逸文學』 109, 韓國獨語獨文學會, pp. 209-233.
- 한성일(2009), 「인터넷 댓글의 비방성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pp. 287-314.
- 한수진(2001), 「함축이론을 통해서 본 광고 언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재영 외(2008),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댓글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 황기동(2001), 「협력의 원리의 화용적 특성」, 『영미어문학연구』 17-1, 영미어학회, pp. 253-272.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Syntax and Semantics*, Academic Press, pp. 41 - 58.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pp. 292-305.
- Yun, Sung-kyu. (1993), *Honorific Agreement*, University of Hawaii dissertation.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격률 위배를 바탕으로 ‘베스트 댓글(best reply)’의 특징과 대화 전략을 살피는 것이다. 베스트 댓글은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므로 이를 분석하면 네티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화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베스트 댓글 자료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NATE)’의 시사, 연예, 스포츠 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을 살피기 위해 Grice(1975)의 대화 격률과 Lakoff(1973)의 공손 격률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였다. 특히 격률의 위배(flouting)로 창출된 특수한 의사소통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격률의 위배 빈도수는 스포츠 기사에 베스트 댓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사 기사, 연예 기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베스트 댓글들은 스포츠, 시사, 연예라는 각 분야에 따라서 변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분야의 베스트 댓글에서 질의 격률의 위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손의 격률과 양의 격률, 관련성과 태도의 격률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질의 격률 위배는 주로 과장법과 은유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관용적 은유 표현과 독창적 은유 표현을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 댓글의 지배적인 대화 전략이었다. 다음으로 공손 격률의 위배 양상은 공손의 표현 대상을 ‘화제 관련 인물’, ‘기자’, ‘네티즌’으로 나누어 살폈다. 공손 격률은 ‘화제 관련 인물’을 표면적 청자로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이 위배되었는데, 이는 표면적 청자에 대한 불손함을 통해 실질적인 청자(네티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의 격률 위배는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한 경우보다는 과소하게 제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소통을 꾀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 위배는 비록 빈도수는 낮았지만 풍자와 해학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격률 위배에 따른 베스트 댓글의 대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유연하게 말하기: 관련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발화한다.
- (ii) 과장하여 말하기: 화자의 의도를 과장하여 강렬하게 전달한다.
- (iii) 은유적으로 말하기: 독창적 은유 표현과 관용적 은유 표현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 (iv) 불손하게 말하기: 표면적 청자에 대한 불손으로 실질적인 청자와 교감한다.
- (v) 은어로서 말하기: 청자와의 공유 지식을 최대화하고 언어 표현을 최소화한다.
- (vi) 유희적으로 말하기: 언어유희를 통해 풍자와 해학을 표현한다.

주제어: 베스트 댓글, 대화 전략, 격률 위배, 대화 격률, 공손의 격률

The Dialog Strategies of Best Replies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 Flouting

Choi Hwa-n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dialog strategies of best replies based on the flouting of maxims. Because best replies are those recommended most by netizens, we may find dialog strategies that are considered ideal by netizens by analyzing best replies. Best repl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news of current affairs, entertainment, and sports in portal site NATE. In addition, the dialog strategies of best replies were analyzed using Grice's (1975) conversational maxims and Lakoff's (1973) politeness principles as theoretical bases. In particular, analysis was focused on particular communication effects produced by the flouting of maxims.

The frequency of maxim flouting was highest in best replies to sports news, and next in those to current affair news and those to entertainment news. Best replies in each area of sports, current affairs, and entertainment show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ommonly, however, the flouting of quality maxims was most frequent in all the areas, and next the maxims

of politeness, quantity, relevance, and attitude in order of frequency.

The flouting of quality maxims was made mainly through hyperbole and metaphor. The prevalent dialog strategies of the best replies were emphasizing the speaker's opinion through hyperbolic expressions, and using many idiomatic metaphoric expressions and original metaphoric expressions. Next, for the flouting of politeness maxims, this study examined the objects of polite expression, grouping them into 'people at issue,' 'reporters,' and 'netizens.' Politeness maxims were flouted most often when 'people at issue' were set up as a superficial audience. This may be regarded as a dialog strategy for creating consensus with the actual audience (netizens) through impoliteness to the superficial audience. In addition, the flouting of quantity maxims was observed more when the quantity of information provided was too small than when it was too much, and in this way, the way of seeking maximum communication through minimum expression was preferred. Lastly, the flouting of relevance and attitude maxims was not frequent but it played the role of presenting satires and humors effectively.

Based on this analysis, the dialog strategies of best replies through the flouting of maxims are summarized as follows:

- (i) Speaking gracefully: utter in an appropriate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related texts;
- (ii) Speaking hyperbolically: deliver the speaker's intention intensely through hyperbole;
- (iii) Speaking metaphorically: utilize both original metaphoric expressions and idiomatic metaphoric expressions;
- (iv) Speaking impolitely: sympathize with the actual audience through impoliteness to superficial audience;
- (v) Speaking in slang: maximize knowledge sharing with the audience and minimize verbal expressions;
- (vi) Speaking playfully: express satires and humors through word play.

Key words: best reply, dialog strategy, flouting of maxims, conversational maxims, politeness principles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